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 일천교회운동

Re-Building 2020

오늘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방향전환

한인연합감리교회
일천교회 캠페인 운동본부
www.KoreanUMC.org

2009 LA 한인총회 소책자안

표지 내지

하루에 한번, 일분 기도

일천교회 운동을 위한 기도문

일천교회의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역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개혁의 꿈을
가진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과 낙심의 그늘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 도전을 위해 나서는 연합감리교회
신앙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 일천교회운동

Re-Building 2020

오늘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방향전환

한인연합감리교회
일천교회 캠페인 운동본부
www.KoreanUMC.org

1000교회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인총회는 지난 수년간 "부흥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8년 아틀란타 총회에서 "5년 500개 교회, 10년 1,000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었고, 이를 임원회는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로 정리하였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 교회에서 교단이 추구하는 제자화라는 커다란 목표와 목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09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일천교회 캠페인'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천교회 캠페인을 처음 제안했을 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 내용을 그렇게 크게 과시하는 것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교회부흥을 숫자적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고상하지 못하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도 함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미쳐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란타에서 열린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시작된 캠페인의 논의가 이제는 많은 관심과 협력, 그리고 함께 이루어 보자는 의지들이 모아지면서 정식으로 운동본부가 발족되고 캠페인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일천교회 캠페인'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바랄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어른들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큰 애정과 헌신을 담으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인답게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일천교회 캠페인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당겨지길 바랍니다.

2009년 4월 20일

김정호 목사,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지금이 바로 그 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

한인총회는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의 비전을 태동시켰습니다. "세상 변화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를 그 존재목적 선언문으로 지니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가장 희망적이에요 동시에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분수령이 이 비전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할 만한 신선한 충격과 가슴 설레이는 꿈을 전해주는 비전입니다. 한인목회 강화협의회는 "웨슬레의 신앙전통과 한국적 영성의 융화를 통한 모든 성도의 제자화"를 그 사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 교단을 깨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러모로 비상시국이요 위기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미래를 그리는 비전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뛰어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와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1천 교회, 1만 신앙 공동체, 십만 제자" 비전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2009년 4월

박 정찬 감독,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회장

뉴욕연회 주재감독

왜 일천교회인가?

새 비전은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김중언 목사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펼쳐갈 1,000교회 운동, 한 번 두 번에 큰 열매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윤선식 목사 (나성금란교회)

Why not?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됩니다.

- 박성희 목사 (뉴저지 트리니티UMC)

최근 추진된 개척교회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성이 개척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개척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 김한성 목사 (보스턴 비전교회)

May God's blessing be with you as ideas are shared and strategies are developed - as you worship, pray, and build the future together.

- Bishop Mary A. Swenson (가주태평양연회 주재감독)

순서

한인연합감리교회 현 위치
일천교회 캠페인 개요
일천교회 캠페인의 성격

교회현실과 시대적 필요성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확대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훈련과 삶의 변화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원리와 교회의 전통
성경적원리, 신학적, 교회사적 근거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전통

일천교회 캠페인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개체교회의 소그룹사역 강화
일천교회 캠페인 단계별 실천계획
일천교회 캠페인을 위한 교단, 지역, 교회별 실천
일천교회 캠페인은 사회적 실천과 함께
교회개혁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

일천교회 캠페인 운동본부 조직시안
일천교회 캠페인 조직강화
일천교회 캠페인 재정운영 방안
한인목회강화협의회 교회개혁 방안

오늘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

일천 교회를 주님께

-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

I.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무엇인가?

캠페인 이름 정하기(Naming): 비전이 담기고 시대를 반영하며 공감하기 쉬운 이름.
일천교회 운동? 일만신앙공동체 운동? 십만제자운동?
“ 일천교회, 일만공동체, 십만제자를 주님께 ”

무엇이 핵심고리인가?

무슨 문제가 풀려야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개체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신앙운동
목표가 분명하고 항상 확인하고 평가가 가능한 운동

1. 한인연합감리교회 현 위치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약 300여개의 교회와 3200여개의 소그룹(속회, 목장, 센터, 셀, 구역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약 4만 7천여명의 주일 출석인원과 그에 대비한 약 3만여명의 장년출석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07-2008 아시아목회센터 (Center for Pan Asian-American Ministries)가 발행한 한인교회/목회자 주소록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전국연합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교회와 개체교회 교인의 감소추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회의 부흥, 성장의 뜻을 모아왔다.

- 10여년간 계속되어 오는 개체교회와 교인 감소 현상을 더 이상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 교단내 한인 목회자들의 숫적인 증가도 배가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300명에 가까운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100명 이상의 여성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소재한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수가 감소되었고, 이와 함께 교인의 수도 감소되었다. 한인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지역에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지녀온 대표적인 한인교회로서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위상은 대부분 실추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각 지역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 4) 중에서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여파는 새로운 교회개혁이나 다른 교회의 성장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미국 주류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도 못하였으며, 한인이민교회의 역사적 현장에 가장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성이나 사역의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그저 개체교회 혹은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누구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인이민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인총회는 지난 수년간 "부흥과 성장"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회에서 "5년 500개 교회, 10년 1,000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과 논의한 결과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라는 비전을 제시하므로 교단이 추구하는 제자화라는 커다란 목표와, 목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서신, 2008년 8월 5일
'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를 주님께' 중에서

■ 일천교회, 십만제자 캠페인 개요 ■

비전 Vision

오는 2020년까지 1,000 교회 100,000 제자를 세운다

핵심가치 Core Value

-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삼기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ransformation of the World
- 소그룹에 참여하는 100,000 세례입교인
Participating 100,000 members in Small Group Ministry
- 잃은 영혼, 작은 영혼, 마지막 영혼을 위한 성서적 선교와 전도사명에 충실하기
Be Faithful to Biblical Mission and Evangelism for the Lost, the Least, and the Last
- 사용가능한 모든 연합감리교 교단 지원과 자료를 동원한 신앙공동체 운동
Maximize All 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Resources for KUMC Faith Community Movement

요약 Summary

- 1) 기간: 2009-2020 (12년)
- 2) 목표: 1천 교회 세우기 1,000 Churches
- 3) 전략: 1만 신앙공동체 만들기 10,000 Faith Community
- 4) 영향력: 10만 제자 양육하기 100,000 Disciples

이전에도 교회개척을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차원의 캠페인이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도 했으나 현재 한인감리교회의 모습은 총체적이고 생동감있는 교회개척 전략의 승리보다는 개척자 개인의 헌신과 연합감리교회 조직과의 불완전한 연결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자리잡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실정에 부합하고, 기존교회의 강화, 갱신에서부터 교회개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일천교회로 성장하자는 구호에서 “내실있는 일천교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최근 새롭게 개척된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파트너십 지원, 분립개척 등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맨땅에 헤딩하던 목회자 개인중심의 개척에서, 팀개척, 연회, 한인교회, 목회강화협의회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개척하는 교회, 모교회로부터 인적, 재정적,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도움을 받는 지교회 혹은 파트너교회 개척 모델이 그것일 것이다. 한국의 온누리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온누리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목회모델을 공유하는 것,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사랑의교회가 여러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일천교회운동은 이미 개척되었으며,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구호에 불과한 캠페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이 이 운동의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2006년부터 2년여간 소그룹 목회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교회나 한인이민교회, 세계 어디를 보아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소그룹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은 대표적인 소그룹목회를 웨슬리의 속회, 밴드, 연합신도회 모델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개체교회 소그룹(속회, 셀, 센터, 목장, 구역)을 강화하면서 건강한 제자,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개혁의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2. 일천교회-일만공동체운동의 성격

1) 웨슬리 신앙운동이다.

- 감리교인이란 시대의 선교적 사명에 따라 거듭 요한 웨슬리를 다시 생각하는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웨슬리는 Methodist 운동의 목적을 '영국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개혁하는 것'(to reform the Church of England)과 '민족을 개혁하는 것'(to reform the nation) 그리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to spread scriptural holiness throughout the land)이라고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서신,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를 주님께' 중에서

2) 평신도 제자화 운동이다.

- 연합감리교회의 존재목적은 “ 예수 제자 세우기” (To make disciples of Jesus)이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 예수 제자 세우기” 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 예수 제자 세우기” 라는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또한 거룩한 부름에 순종하는 목회자/성도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4) 중에서

3) 영성훈련(경건/성화)이다.

- 요한 웨슬리는 성서적 경건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경건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은혜의 삶, 사회적 경건으로 예수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나눔/섬김의 삶을 강조했다. 또 웨슬리는 개개인 삶의 자리가 사회적 정황과 만나는 은혜/나눔/섬김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4) 중에서

4) 신앙공동체 운동이다.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은 교회를 갱신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자연히 기존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신앙공동체/소그룹에서 교회라는 조직적인 형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5) 교회의 부흥운동이다.

일천교회, 일만신앙공동체 운동은 십만제자를 양육하는 제자화운동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며, 이 속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그룹을 강화하는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교회개혁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작은 신앙운동 단위가 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총체적인 연대성(Connectionalism)은 제자는 소그룹에서, 소그룹은 반드시 건강한 개체교회와 연결되어 부흥과 교회개혁의 꿈을 이루어가는 부흥운동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II. 교회 현실과 시대적 필요성

1.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현실

- 1) 300 한인연합감리교회 3만 성도
- 2) 목회자 중심 개혁운동의 한계
- 3) 자원(인적, 물적)을 집중하는 선교 전략 부재 - 소, 중, 대형교회의 연결성
- 4) 이민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 약화

- 연합감리교회 현황

2004년 상반기까지 연합감리교회 교인 수는 미국 내 800여만 그리고 해외에 190만명 정도이다. 미국내 43,000여명의 목회자(은퇴교역자 포함)가, 연합감리교회 내 35,000개 정도에 이르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1890년부터 1965년 동안에는 미국인 15명 중 1명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였으나, 2000년 현재는 29명 중 1명만이 연합감리교회 교우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는 세 배(300%)로 증가된 반면, 연합감리교인 수는 약 절반(50%)으로 감소되었다.

<u>1960-2000</u>	<u>인구증가</u>	<u>교인증가/감소</u>
TX+	118%	15%
GA+	108%	19%
FL+	222%	40%
IL	23%	-45%
NJ	38%	-40%
MA	23%	-48%
CA	116%	-42%
USA	56%	-22%

연합감리교회 현황(성장/정체)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 성장 (장학순 목사)중에서,

2008년 현재 300여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도의 숫자와 전체 KUMC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는 이번에 추산된 자료를 기본으로 운동의 큰 틀을 세우는 시도이다.

- KUMC가 관심 가져야 할 많은 어젠다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문을 닫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이미 15여 년 전에 500 교회 10만 성도 캠페인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KUMC는 부흥과 성장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절에 비해 이민자의 인구가 지역에 따라 50%에서 200% 가까이 성장을 했지만 KUMC 교세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감소되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미래, 5년 500교회 10년 1,000 교회 캠페인’ 중에서, 2008 한인총회자료집

■ 한인연합감리교회 현황 ■

① 2007-2008년 기록에 따르면 한인연합감리교회 현황은 개체교회 숫자 288개, 소그룹 숫자 3174, 주일출석인원 47380 으로 추산할 수 있다. 교회숫자는 2007-2008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아시안 태평양 목회센터 (CPAAM)가 발행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소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새롭게 개척된 교회와 영어권 회중 등 주소록에 포함되지 않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다. 2009년 아태목회센터 기록은 전국에 303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일출석인원의 두배 정도를 교회재적인원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황은 303개 교회, 출석성도 50,000명, 재적성도 100,000명 정도로 추산가능할 것이다.

② 아래의 표에 있는 소그룹과 주일출석인원은 총회 공보부에서 2005-2007년까지 사역했던 류계환 목사가 당시 사역기간동안 방문한 지역과 교회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주일 출석인원 150명 정도의 교회가 있다면 약 100명의 성인교인, 50여명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10개 정도의 속회 혹은 셀 등 소그룹이 있다고 추정하여 개체교회의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해 본 것이다. 물론 소그룹 숫자 중에는 활동적이지 않은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2009년 현재 3000여 개의 소그룹이 있다고 정리했으며, 주일출석인원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약 30,000명의 출석하는 성인교인을 추산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300개 교회, 3000 소그룹,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인교인 30,000 제자라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현황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다.

③ 현재 한인총회, 지역연합회 모임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더욱 현실적인 수치를 보완해 준다면 더욱 정확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회나 선교구 단위로 재확인하는 과정도 캠페인의 현황과 전망, 미래를 위한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④ 추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 이미 연회에 가입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 각 지역연회 기록을 바탕으로 개체교회 교인, 출석, 주일학교, Youth, 예, 결산 규모 등을 집계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매년 말 각 지역연회록이 발간된 후 집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2.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 확대

-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7:20)는 말씀처럼, 그 사역의 결과로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적으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는 것은 성경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느냐에 달렸다.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인 만민제사장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교회 내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은사에 따라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다. 그런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이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 예수께서는 깊은 교제 - 건물이 아닌, 코이노니아 - 에 근거한 공동체를 지으려고

하셨다.

“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막 14:58)”

김덕수, [셀교회전환과 셀리더세우기] 중에서

-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의 바램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고든 코스비,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 중에서

3.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경건/성화)훈련과 삶의 변화

- 본 웨퍼(Bonhoeffer) - 아무리 진실하고 진지하고 거룩할지라도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을 넘어선 어떤 것을 꿈꿀 때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본 웨퍼, [신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 교회의 핵심사명은 삶의 변화이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의도적인 관계(intentional relationships) 속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은 기존체계에 덧붙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이 교회 문화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런 변화는 핵심 지도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앤디 스탠리,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교회의 성장비결] 중에서

-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고든 코스비,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 중에서

III.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원리와 교회의 전통

1. 성경적 원리, 신학적, 교회사적 근거

- 성경적인 공동체의 기원

구약에서의 공동체 : “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 -삼위일체의 하나님, 공동체로의 교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온 인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다. “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1:27) 하나님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

신약에서의 공동체 : 예수께서 12명을 제자 삼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공동체는 열두 족속으로 구성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9족속 반 정도만 남은 상태이다. (Robert Stein)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열두명으로 제자단을 만든 것은 열둘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 위함으로, ‘제자단’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였다 (일부 제자 훈련가들이 말하는 제자훈련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김덕수, [셀교회전환과 셀리더세우기] 중에서

-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의미있는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앤디 스탠리,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노스포인트교회의 성장비결] 중에서

- 예수께서 열둘을 세운 이유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kerysso-proclaim)도 하며(막 3:14)” 설명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사역에 앞서 그들은 함께 있어야 했다.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는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제자훈련반’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지적했다

랄프 네이버, '셀교회지침서' 중에서

2.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전통

- 웨슬리가 속회, 신도반, 선발 신도회, 참회반 등 다양한 소그룹을 조직한 이유는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한상호, [직고를 통한 소그룹 부흥] 중에서

- 1739년 브리스톨 신도회의 집회와 교육을 위해 건축한 집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신도회는 모든 신도회를 12명씩 한 그룹으로 나누고 지역 단위의 조직이 신도회 회원들의 돌봄과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영감을 얻고 이를 “속회”(Class Meeting)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하게 되었다.

- 보다 깊고 분명한 유대관계를 원했다. 그러한 요구가 bands(반)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웨슬리가 헤른후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서 모라비안 조직의 치밀성을 보았다.

박용호, [돌봄의 속회와 교회성장] 중에서

- ‘밴드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성화의 단계에 들어선 헌신된 성도들로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소그룹에서는 헌신된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한 교인들이 머무르는 ‘목장’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 소그룹에 기반한 교회개혁 사례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302]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08-2009 일천교회 운동 vision sharing, 2009년 연차총회 결의, 지역연합회/연회 캠페인시작

기존 선교교회 전략평가 - 교회재개발, 개척 다양한 모델마련

비전실행기 350 교회, 4,000 소그룹, 40,000 장년성도 (4년동안 50개의 새교회 개척)

2009-2012 건강한 소그룹 - 신앙공동체 지도자 훈련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강화, 영성훈련 모델

영성프로그램 (Walk to Emmaus - KUMC version)

Youth/Children's Ministry 소그룹 사역, TG 소그룹 사역 모델개발

교회개척 위한 소그룹 평신도지도자 훈련

건강한 소그룹은 복음전파에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데 관심을 가진다.

부흥체험기 400 교회, 5,000 소그룹, 50,000 장년성도 (4년동안 150개의 새교회 개척)

2013-2016 500 교회, 6,000 소그룹, 60,000 장년성도

건강한 소그룹 사역이 뿌리내리고, 소그룹이 교회개척으로 연결되도록

1 속회 1 선교지 전략에서 1 속회 1 선교교회 전략으로

소그룹이 교회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며, 도와주는 신앙공동체로.

개체교회내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사역 경험 (나이, 프로그램, 영성훈련 등등)

독자적인 교회개척모델에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가지는 교회개척으로

부흥발전기 1,000교회, 10,000 소그룹, 100,000 장년성도 (4년동안 500개의 새교회 개척)

2017-2020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 지역핵심교회가 1년에 1개 교회개척

8년 동안 개체교회는 교회개척을 위해 소그룹사역 지도자를 훈련하고 세운다.

8년 동안의 신앙운동을 통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브랜드이미지를 분명히 한다.

교회개척과 건강한 소그룹사역에 관심있는 목회자 지도력을 개발한다.

3. 1,000교회 캠페인을 위한 교단, 지역, 교회별 실천

소명의식(Calling Model) 회복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

다양한 전도/홍보 전략 수립

현재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선교교회를 포함한 미자립교회 현황 진단

교회 성장과 부흥 모델 제시

한인 인구 이동에 따른 교회개척

대표성을 지녔으나 정체된 교회들을 의식적으로 활성화

이승우,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의 거침돌과 디딤돌' 중에서

1)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 임원회/ 중앙위원회 비전 나눔

1,000 교회 운동 본부 결성

매년 총회에 운동현황 및 결과 보고

우수전도자 시상, 전도훈련

총회결의(2009년 4월 총회) - 예산, 조직, 방향성 등

전국단위 소그룹 리더 훈련 프로그램
목회강화협의회와 함께 소그룹사역, 교회개혁사역 강화
교회개혁학교 - 목회자, 평신도
선교교회 목회자학교

2) 지역연합회 / 선교구 혹은 지역연회 단위 지역단위 비전나눔

1000 교회 운동 지역본부 결성 - 지역단위 운동사항 진행보고
2008-2009년 지역연합회 핵심과제로 설정, 2009-2020 중장기 계획 수립
건강한 소그룹 사역 위한 지도자 훈련
교회학교 지도자 훈련, 중고등부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지원
전도학교, 목회자 / 평신도 전도훈련

3) 개체교회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제자운동 캠페인 준비
소그룹 리더 훈련 - 제자훈련, 영성훈련
건강한 소그룹을 기본으로 한 목회계획
온 교우의 소그룹 참여
교단/연합회/연회 차원의 전도훈련, 전도 캠페인

4) 개체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1000교회 운동

소그룹 참여 - 다양한 소그룹 구성, 리더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
전도캠페인 - 전도훈련, 소그룹 전도실천
나눔과 섬김의 사역 - 지역사회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 (사회적 실천 내용 참고)

30,000 성도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헌금 (개혁헌금)

개인헌금 : 1인 \$1 * 30일 = \$30 * 12개월 = \$360 * 10,000 명 = \$ 3,600,000
교회헌금 : 개인 헌금액수 Matching 10% = \$ 360,000
매년 \$ 3,960,000을 연합감리교회개혁기금으로 헌금가능

5)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총회기관 - 교단총회/지역연회까지 연결

소그룹 지도자 훈련 교재 개발, 훈련
소그룹 사역 활동 위한 자료개발
전도훈련 자료개발
교회개혁 매뉴얼 준비
전국적 대회 지원 - 소그룹 사역 중심, 교회개혁 준비
“ 한인총회, 전국지도자대회, 목회자 학교, 각종 연차대회를
소그룹 사역, 교회개혁 준비를 위해 집중”

6) 10,000 신앙공동체 운동 지역핵심교회

지역핵심교회가 있어야 한다.
지역핵심교회는 지역내 일천교회, 일만신앙공동체 운동 확산의 거점이 된다.

개체교회에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건강한 소그룹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

4. 1,000교회 운동은 사회적 실천과 함께

1,000 교회, 10,000 신앙공동체 100,000 제자운동을 통해 교회의 부흥, 성장운동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할 사회적 실천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통한 신앙공동체 형성, 개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이라는 대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캠페인을 함께 벌여 나감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도의 삶과 말씀, 변화된 생활을 연결시켜 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주류교단으로서의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인지도는 여러 교회, 교단과 비교하여 결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지난 8년여 동안 총회 공보부와 여러 지역연회, 개체교회는 이그나이팅사역 (Igniting Ministry)을 통해 교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지역도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한인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지원하고 도와온 교단이다.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점으로 하와이 연차총회를 거쳐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전국적인 교단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제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캠페인 - 주류교회와 연결, 지역교회협의회 공동예배, Igniting Ministry
- 지역사회 학교 지원 - adopt your school 교회인근지역, 저소득층 지역 등등
- 지역사회 선교 Backyard Mission - 히스패닉 사역
- GBGM Justice Mission - 이민상담 봉사, 이민정책 변화위한 서명캠페인
- 기타 교회의 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의 사회적 참여 사례)

- 1) 가톨릭 ‘내 탓이요’ 캠페인 운동, 사회봉사를 통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
- 2) 기독교대한감리회 ‘희망 프로젝트’ - 교단적 캠페인 진행,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짐
- 3) 섬김과 봉사(순복음교회 ‘사랑의 지팡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5. 교회개혁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개체교회에서 이미 준비된 지역내 소그룹을 통한 교회개혁
 평신도 사역자와 소그룹을 개혁목회자와 함께 파송하는 교회개혁
 기존교회 분립개혁/Teaching Church Model 모교회-지교회, 준비된 소그룹이 개혁
 은퇴목회자와 신학생 등 기존 연합감리교회 방식에서 벗어난 교회개혁
 타인종교회 한인목회자의 한인연합감리교회 혹은 한어목회 개혁

V.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와 새로운 시작

언급된 새로운 교회개혁의 경험이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아직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연합감리교회 행정 책임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혹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의 모델이 많지 않다.
 제자훈련은 있었지만 소그룹 사역 리더를 위한 좋은 훈련경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1. 하지만 없던 길을 새롭게 여는 것만은 아니다. 이전에 속회 혹은 소그룹 분립개혁의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운동은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소그룹 사역 성공의 기준이 애매하다. 웨슬리적 전통을 다시 살려야 한다.
4. 건강한 소그룹 사역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여전히 개체교회 목회자의 주된 관심이다.
5. 개체교회 현장에서 필요하며, 이미 사용되었으며, 검증된 자료에서 시작한다.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협력도 가능하다

-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캠페인과 교단 방향성 논의
-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함께 교단 중장기 전망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협력논의
- 연합감리교회 총회기관 한인사역자들과 개체교회의 필요를 위한 동역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의 중장기 사역 전망에 대한 논의

1,000 교회 캠페인과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일정

2008년 4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총회 (아틀란타, 조지아)			
	현장개정,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출범, 500교회, 1000	교회	비전	첫 번째
제시				
2008년 5월	연합감리교회 총회 (포트워스, 텍사스) 교단 4대 선교과			제
채택				
2008년 9월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잉글우드, 뉴저지), 캠페인 토론		에	
동북부지역 목회자 참가				
	'1,000 Church/ 10,000 Faith Community/ 100,000	Disciples'		캠페인
제안				
2008년 11월	동남부지역 목회자학교 - 1,000 교회 캠페인 (아틀란타, 조지아)			
2008년 12월	서부지역 캠페인 토론 (LA, 캘리포니아)			
2009년 2월	중북부지역 모임 참여 (Chicago, 일리노이)			
2009년 4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연차대회 (LA, 캘리포니아)			

다시 한번 살펴보는 1,000교회 캠페인 주요 흐름

비전공유기 2008-2009 현재: 300 교회, 3,000 소그룹, 30,000 장년성도
일천교회 운동 vision sharing, 2009년 연차총회 결의, 지역연합회/연회 캠페인
기존 선교교회 전략 평가 - 교회재개발, 개척의 다양한 모델 마련

비전실행기 2009-2012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뿌리내리는 시기

2012년 목표: 350 교회, 4,000 소그룹, 40,000 장년성도 (4년간 50개 새교회 개척)
건강한 소그룹 사역 - 복음전파에 열심, 새 생명을 낳는데 관심가지는 운동
소그룹 사역 강화 - 리더 훈련, 영성훈련 (Walk to Emmaus - KUMC version)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 - 소그룹 사역 강화, 교회개척 학교
Youth/Children's Ministry 소그룹 사역, TG 소그룹 사역

부흥체험기 2013-2016 건강한 소그룹 모델이 교회개척으로 연결

2014년 목표: 400 교회, 5,000 소그룹, 50,000 장년성도
2016년 목표: 500 교회, 6,000 소그룹, 60,000 장년성도 (4년간 150개 새교회 개척)

부흥발전기 2017-2020 개체교회 1교회 개척, 핵심교회 1년 1교회 개척

2020년 목표: 1,000 교회, 10,000 소그룹, 100,000 장년성도 (4년간 500개 새교회 개척)
2009-2016년까지 8년 동안 교회개척을 위한 소그룹사역 평신도 지도자 훈련, 신앙운동을 통한
한인연합감리교회 브랜드이미지 제고, 교회개척과 소그룹사역에 경험있는 목회자 지도력 개발

일천교회 캠페인 운동본부 조직 (시안)

고문

차현회, 김해중, 선윤경, 박대희, 조은철, 권진태, 이처권, 한상휴, 김상모, 김광진

명예의장

박정찬, 정희수

공동의장

김중언, 나구용, 윤선식, 이훈경, 장동찬, 김정호

상임의장

송종남, 신용철, 이성철, 이성현, 안명훈, 김영봉, 이승우, 김낙인, 김광태, 한상신

자문

(선교감리사, 총회기관 스태프, 지방감리사, 지역연합회 회장, 신학대학원 교수, 기타 자문위원)

실행위원회

공동의장단, 상임의장단, 캠페인 상임총무, 목강협 사무총장

실행총무단

부의장/중앙위원회 (타인종, 여성, TG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지역위원회 (현직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일천교회 캠페인 조직강화

1. 한인총회 전체의 흐름이 모아질 수 있는 배려
2.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참여도모
3. 평신도 리더들의 참여 가능
 - 목강협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평신도 지도자
 - 개체교회에서 추천받은 평신도 지도자
 - 여선교회 연합회, 남선교회 연합회, 지역연합회 등등
(재정지원, 교회개척훈련, 개척지원, 영성훈련, 소그룹사역 등등)
4. 지역연합회 혹은 연회단위 조직구성 - 캠페인 추진동력 확산
 - 실제 캠페인 추진이 가능한 목회자 중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 지역중심교회, 실제 가능성 여부
 - 기존 선교구의 역할
 - 지역 단위 운동본부 - 지방감리사/연회와 연결
5. 지역/전국단위 교육 훈련 프로그램
 - 기도, 전도, 소그룹, 말씀묵상, 목회자학교
6. 교회개척에 경험있는 멘토링 조직
7. 다양한 개척모델 준비
 - 신학생, 안수후보생, 여성목회자, 타인종목회자
8. 실무분과 구성 - 평신도, 기획, 조직, 홍보, 재정, 훈련(개척후보자)
9. 실행총무단 - 30-40대 젊은 목회자 중심
10. 자문역할을 전문위원 제도로 강화, 실제 캠페인에 참여가능하도록
 - 캠페인 자체에 대한 방향성 정립, 토론, 구체적 준비팀

일천교회 캠페인 재정운영 방안 구상

- 개체교회 교회개척 헌금: 일천교회 특별선교헌금 - 개인헌금 매칭
- 개체교회 개인헌금 - 1인 1불 헌금 (매월 \$ 30 * 12개월) = \$360
- 평신도 특별헌금 (일천교회 캠페인 운영지원)

-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회의, 조직운영)
- 교회 지원 (운동본부 인력, 사무행정 지원)

- Foundation for Evangelism (연합감리교회 전도재단)
- Lily Foundation (소수인종교회 개척, 목회자훈련, 평신도훈련, Cross-cultural training 등등)
- 매영숙재단 (하와이 장흥식 장로)

- GBOD 총회제자훈련부 Path One
- GBGM 총회세계선교부 아시안교회사역, 소수인종교회개척
- GBCS 소수인종교회 사회선교사역

일천교회 캠페인 교회개척 방안

1. 기존의 교회개척 전략에 대한 재평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현황 1990년대 이후
지역연회및 지방감리사들의 협조, 지원, 현실
한인선교구 중심의 교회개척 모델 평가
전국단위 선교구 조직의 필요성 재평가

2. 다양한 교회개척 모델

은퇴목회자를 통한 개척

- 신학생 혹은 젊은 목회자와 공동목회 가능성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신학생이 시작하는 개척

기존 연합감리교회내에 한어권 목회형식으로 개척

타인종교회내 한인목회자의 한어권 예배/성경공부 형식으로 개척

타인종교회내 여성목회자의 한인교회 공동사역 모델

3. 현재의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의 교회개척 모델

준비된 소그룹을 개척목회자와 함께 파송하는 교회개척

개체교회 소그룹이 기존교회의 지교회 역할을 하는 모델

- 평신도 사역자 중심의 소그룹 사역(전도, 성경공부, 소그룹)

기존교회의 제2캠퍼스(지교회) 모델

- 새로운 지역에 새 예배처소, 회중을 파송

Teaching Church 모델

- 개척후보자의 인턴십 기간을 통해 목회를 배우는 시간

- 새로운 지역에 모교회 목회모델을 적용, 개척

- 개척지원: 소그룹, 평신도사역자, 단기간, 장기간, 개척파송

일천교회 캠페인 강화계획안

- 캠페인계획은 working document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 자문위원의 캠페인 계획안 평가, 대안 마련
- 선교감리사 (교회개혁현황, 전망, 대안, 문제제기 등)
- 지방감리사 (연회와 연결, 문제가 되는 지점,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신학대학원 교수진 (신학적, 역사적 접근, 전략적 방향성 정립 등등)

- 기존 교회개혁자들 중심의 현실적인 개혁지원방안 수립
- 성공적인 교회개혁 모델 정리

www.KoreanUMC.org

- 총회공보부가 운영중인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에 일천교회 캠페인 웹사이트 추가 설치 보완 운영
- 캠페인 관련 자료, 회의, 계획 등에 대한 일상적인 공개

- 캠페인 사역, 목강협 교회개혁 사역, 한인지역 선교구 사역 조정
- 목강협 내 소그룹사역 리더 훈련 교재 발간
- 소그룹 사역 강화를 위한 자료

- 개혁교회를 다양한 목회자료 공유
- 이중언어예배 자료 (세례, 견신례, 절기예배 등등)
- 성경공부, 제자화 성경공부, 세례교육, 새가족성경공부,
- 말씀묵상사역 -“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기도, 소그룹교재 등등
- 주일장년성경공부, 인도자용 교재, 학생용 교재, 인도자 워크샵 운영
- 영성훈련 Walk to Emmaus (LTD 등) 참여, 인도, 지원